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인물포커스] 인터뷰

(2023. 3. 8.(수))



1. 우주항공청 개청이 착착 준비되고 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단은 특별법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5일 간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뒤 법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상반기 중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과 청사 마련 등 12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또한 임시청사 및 청사 후보지에 관한 사전 검토를 완료하는 등 연내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역시 올해 안에 문을 여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므로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라 국회 의결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개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며, 우주강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이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연내에 개청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어느 규모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우리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시설에 대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 또한 기관의 역할, 직원들의 수요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항공청이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한 후보지 자료들을 완벽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지 확정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4. 사천이 진정한 우주항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해졌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우주항공청 설립 확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으로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발전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기본구상, 행정복합타운 조성 방안과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항공청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주해오는 직원 및 기관에 관한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도로, 철도 등 교통편의 확충이 필수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우리 사천시는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과 물동량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 사천읍 일대에 다각적인 교통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공산업대교 건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산업대교는 곤양면 검정리와 사남면 방지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이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삼천포간 철도 노선을 2025년에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와 그에 따른 물류 증가, 삼천포 무역항의 역할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이 외 시장님께서 그리시는 올해 시정구상을  
전해주신다면?

저는 민선8기 출범부터 지금까지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와  
해양관광 거점도시라는 2개의 중심축을 미래비전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8개 읍면지역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한국의 시애틀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삼천포의 동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도~마도~두응도~신도~늑도 등 5개의 섬을 잇는  
삼천포무지갯빛 생태탐방로와 대관람차, 회전목마 등을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와 연계해서 개발된다면,  
동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 휴양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외에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사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